

港灣18곳에 213億원 投入 增·改築에도 105億원

金 容 福 <海運港灣廳開發局 土木技佐>

해운항만청에서 관장하는 지정항만은 48개 항만이다.

그 중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구분하는 무역항은 27개항만으로 건설 및 운영을 해운항만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구분되는 연안항은 21개 항만이며 항만건설은 해운항만청에서, 운영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다.

또한 임해공업단지 지원을 위한 공업항은 그동안 건설부 주관으로 건설되어 왔으나 91년도부터 건설업무가 해운항만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항법에 의한 어항을 제외한 항만건설 업무의 일원화를 이루게 되었다.

해운항만청 관장항만중 어민 편의를 위한 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무역항만은 대부분 어항구역을 별도로 설정 운영중에 있으나 어항시설 위주의 연안항(시설현황 표참조)은 규모가 작아 어선과 화물선 및 잠종선 등이 교대로 항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획물과 일반화물 처리에 많은 지

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무역항등 주요항에 집중되고 일반화물처리 부두에 중점을 둠에 따라 어항시설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투자를 확대하여 어획물의 신속처리 어선의 안전대피 등 어민생계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형선박의 안전정박에 필요한 항내 정온유지와 어획물 보관 및 어구 손질등을 위한 충분한 배면부지를 조성해야 한다.

한편 어선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 어항시설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항만시설 확장여지가 없는 기존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기존시설을 개축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92년 港灣施設 投資계획

해운항만청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항만개발 사업중 어민 편의 제공을 위한 92년도

어항시설 확장은 18개 항만에 213억원을 투입, 안벽 400m, 물양장 790m, 방파제 350m를 축조할 계획이며, 기존시설의 증·개축에 105억원을 투자하여 대피어선 보호를 위한 방파제 보강 11개소와 노후물양장 개축 96개소를 실행계획이다.

주요 어항시설 관련 투자항만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남항 건설

부산남항은 우리 나라 제일의 어항으로서 성어기에는 최대 1천여척이 집결하여 어획물 양륙, 보급품 공급, 원양어선의 휴식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년 태풍 내습시 항내가 정온하지 못하여 구조물 및 선박의 피해가 발생되고 만성적인 체선으로 제때에 어획물 양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획물 선도저하 및 어가하락 등으로 생산어민의 생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개발건의

어항시설위주 연안항 시설현황

〈'90년말 현재〉

항 별	안 벽 (M)	물 양 장 (M)	방 파 제 (M)	하역능력 (천톤)	접안능력 (척)
연 평 도	-	-	1,087	-	-
광 천	-	152	-	30	-
비 인	-	-	245	-	-
대 천	-	117	300	47	-
대 흑 산 도	-	1,148	1,176	315	-
나 로 도	-	513	250	103	-
거 문 도	-	818	1,645	136	-
구 조 라	-	-	201	-	-
부 산 남	-	3,804	528	920	-
감 포	-	840	445	175	-
월 포	-	82	157	16	-
구 룡	724	544	954	687	7
강 구	-	902	456	180	-
후 포	197	886	1,155	449	1
죽 포	105	871	708	229	1
도 동	80	133	185	90	1
임 동	80	443	433	241	1
거 원	70	1,056	728	242	1
주 진	105	1,018	851	484	1
성 포	198	556	1,781	420	1
한 립	425	263	2,567	441	5
화 순	82	72	603	94	1

등 민원이 야기되어 87년 부산 남항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선, 90년부터 93년까지 107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50m, 물양장 680m를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92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 둘째 물양장 210m를 축조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공되는 93년 말에는 어선수요 800여척 수용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감천항에 원양어업 전용부두 축조 및 관련부지 조성을 위해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대천항 건설

대천항은 항내 수면적이 협소하고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어선, 해경, 관용선, 예인선, 여객선 및 기타 화물선이 혼합 접안을 함으로써 선박 충돌사고의 우려를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항내 진입도로 및 배후지가 협소하여 항만 이용면에서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앞으로 대천항을 충남 중부 일원의 어업중심 기지항으로 개발키 위하여 정온수역을 확보, 항만기능 유지를 도모하고

접안시설의 용도별 기능부여로 항만시설 이용 효율을 제고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와 인근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키 위해 충분한 양륙부두 및 항만관련사업 유치에 필요한 항만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89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되는 본사업은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자, 물양장 595m, 북방파제 600m를 축조할 계획이며, 92년에는 91년보다 증액된 25억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및 방파제를 축조할 계획이다.

본사업이 완공되는 93년 말에는 항내 정온수역이 15만㎡로 증대되고 하역능력이 연간 20만 3천톤으로 증가되어 어민 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케 될 것이다.

▶ 대흑산도항 건설

대흑산도항은 성어기 최대 집결 어선수가 640여척에 달하는 서·남해안의 어업전진 기지항이며 본항 근해에서 조업하는 외래 어선등의 황천시 긴급 대피항으로서 기능도모와 여객부두, 양륙부두, 기타 항구등 용도별 기능부여로 항만 효율을 제고하고자 80년도부터 93년까지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570m, 물양장 240m를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92년에는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파제 상부 60m와 물양장 40m를 축조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태풍시

서·남해안 어장에서 대피한 어선의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및 어민소득 증진을 도모케 될 것이다.

▶ 목포북항 개발

목포항은 호남지역 관문항으로 연안화물 수송과 도서 교통 및 관광의 중심항으로서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화물처리항과 어항을 구분 개발하고 있는 항만이다.

목포내항의 혼잡을 해소하고 목포항내에 산재되어 있는 어획물 위판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제빙공장 조선시설등 어업관련 유통시설의 이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84년부터 96년까지 187억원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1천5백여척 수용규모의 어선 전용부두 확보와 21만 9천평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92년에는 21억원을 투자, 물양장 및 호안을 계속 축조할 계획이다.

▶ 속초 청초호 개발

동해 복단에 위치한 속초항을 기존 북항은 화물선 및 여객선 등 상항 위주의 항만으로 이용하고 청초호는 어항 및 관광위락 기능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항 기능별 분리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청초호개발은 총 164억원을 90년부터 93년까지 투자하여 방파제 330m, 물양장 861m, 호안 182m를 축조할 계획이며, 92년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176m를 축조 계획

이다.

장기적으로 속초항 어선 물양장 수요 800여척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 구룡포항 건설

구룡포항은 경북 영일군에 위치한 동해안 어업전진 기지로서 어선의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을 양륙, 보급, 휴게부두 등 용도에 따라 전용부두로 구분 개발하여 성어기 550여척의 선박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황천시 선박의 안전 대피를 위한 정온수역을 확보하고자 82년부터 93년까지 총사업비 107억원으로 방파제 393m, 안벽 1,226m를 축조할 계획이다.

92년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91년 방파제 393m 축조 완료에 이어 안벽 184m를 축조할 계획이다.

▶ 후포항 건설

어선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 물양장을 개축 정비하고, 황천시 선박의 안전 대피를 위하여 후포항 건설에 81년부터 93년까지 220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908m, 물양장 900m등을 축조할 계획이다.

92년에는 방파제, 물양장 축조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연안 화물 및 집결어선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장승포항 건설

장승포항은 경상남도 장승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항만으로

서 인근지역을 운항중인 여객선의 통합수용을 위한 여객선 터미널 건립공사를 90년에 완공, 현재 운영중에 있다.

본항을 이용하는 어선수용을 위한 접안시설은 민간매립지역에 일부만 확보됨으로써 어선수용 시설부족으로 기존 해안선에 연하여 설치된 도로호안에 접안함에 따라 어획물 양륙 및 이·접안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동 호한 시설도 노후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물양장을 조기 축조하고자 91년에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92년부터 94년까지 물양장 390m 축조에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92년에는 물양장 40m 축조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사업이 완공되는 94년이후에는 본 항 이용어선 300여척의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이다.

▶ 기타 항만 건설

이 외에도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낙후된 항만시설 정비를 위하여 감포항에 어선 물양장 축조 460m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2년에는 5억원을 투자 물양장 92m를 축조할 계획이다.

군산항은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후된 호안에 계류함으로써 어획물의 적기 양륙이 곤란하여 수산물의 선도가 떨어지고 어선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91년 실시설계 시행에 이어 물양장 축조 400m에 39억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92년에는 물양장 축조 50m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어선대피 수면적 확보를 위한 강구항 방파제 축조는 92년에 7억원을 투입 200m를 완공할 계획이며, 주문진항 방파제 150m완공에 5억원, 그리고 삼천포 구항의 어선피해 방지를 위해 방파제 500m에 70억원이 소요되는 방파제 축조를 위해 92년에 2억원과, 기 추진 중인 노후물양장 개축에 6억원을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도동항은 항내 수면적이 협소하고 외해에 직접 노출되어 악천후시 모든 선박이 타항으로 대피하는 실정에 있어 91년 항만개발의 타당성여부 및 적정 입지 선정에 대한 조사용역에 이어 92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群小港 개발 積極추진

해운항만청에서는 어민 소득증대와 도서민의 생활편의도모, 연안화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소항 개발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어항시설이 어민들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어촌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써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정부예산이 무역항 개발에 집중되어 등 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어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들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민 생활근거지 보호 및 어획물 양륙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항이 항만 투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內 務 部

漁港기본施設 持續的으로 擴充 島嶼를 매력있는 定住圈化

金 燉 起 <內務部 特殊地域 擔當>

금년은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였다.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6월의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30여년만에 지방자치체가 부활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체가 실시되지 않은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눈부신 경제성장

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자원의 최적 배분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지역간·계층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고 사회 갈등 구조를 증폭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환해성(環海性), 협소성, 격절성(隔絶性) 등 도서지역만이 갖는 특수여건으로 그 경제·사회는 낙

후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86년 도서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서지역의 급수, 전기, 교통 등 기초생활 수요의 해결과 어항 기본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아직까지 도서지역은 육지부와 비교하여 소득과 생활조건 등 여러가지